

정은보 이사장 “거래시간 연장 등 시장 인프라 선진화”

〈한국거래소〉

거래소 ‘코스피 5000’ 세미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과제 제시
반도체 중심 양극화 경계 진단
정 이사장 “프리미엄 시장 도약”

‘오천피’(코스피 5000)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익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의 연속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지수 상승의 이면에 자리한 구조적 양극화 문제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개최된 ‘코스피 5000 앤드 Beyond(KOSPI 5000 and Beyond)’에서 “자본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바탕으로 코스피 5000을 넘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75.6%라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주요국 중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가총액도 역사적인 4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 이사장은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27일 사상 최초로 4000을 돌파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5000을 다시 넘어서는 쾌거를 이뤘다”며 “우연이 아닌 범정부적으로 주주 가치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벤류업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로는 ▲신뢰받는 시장 구축 ▲생산적 금융 역할 강화 ▲글로벌 경쟁력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기념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강준현 국회정무위원회 여당간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으며, 체감 경기와 주식시장의 괴리, 그 속의 양극화 현상을 짚었다. 다만 최근 주가 급등을 ‘버블’로 인식하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센터장은 “코스피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0배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며 “최근 상승은 2023~2024년에 오르지 못했던 부분을 만회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이같은 현상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독일의 GDP는 역성장인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 속에서 실물 경제보다 자산시장이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센터장 모두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조 센터장은 “여전히 신흥국 평균 대비 25% 가량 할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정부, 학계, 금융투자업계 및 개인 등 주요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코스피 5000 이후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성장을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코스피 5000 안착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통한 구조적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이어 김 센터장은 “주가 상승은 한국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코스피 5000 돌파의 주인공을 반도체로 보는 시각이 동일했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확보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 감시 시스템을 첨단화하고, 부실 기업 퇴출 요건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모험 자본 활성화를 위해 첨단 혁신 기업들의 상장을 촉진하고, 시장 구조 개편과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통한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거래 시간 연장과 청산·결제 주기 단축 등 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주가조작 세력이 두려워하는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강력히 전했다. 근본적으로 부당이득 재원을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부당 이득에 비례해 횡기적으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부연이다.

◆ “한국증시 여전히 저평가”

이날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코스피 5000 달성을 이후의 자본시장 과제에 대해 짚었다.

조 센터장은 ‘코스피 5000시대, 안착 및 도약을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이익 성장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 중심의 이익 성장,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 결과”라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등 자본시장 관련 정책이 유동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의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조 센터장은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분의 73% 정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나올 것이고, AI 적용에 따라 생산성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지수 상승과 체감 경기 사이의 온도 차이는 구조적 양극화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중심의 양극화 현상은 짙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그는 “AI 버블 우려는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투자비중은 인터넷 사이를 대비 낮은 규모”라며 “2028년까지는 공급 부족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김 센터장은 “주가 상승은 한국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코스피 5000 돌파의 주인공을 반도체로 보는 시각이 동일했

삼성증권, 아폴로 업무협약… 글로벌 대체투자 상품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 통해 경쟁력 강화
박종문 사장 “수준높은 상품 선보일 것”

삼성증권이 차별화된 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삼성증권은 지난 2일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인 아폴로(Apollo Global Management)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글로벌 대체투자 상품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글로벌 운용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상품 경



(왼쪽부터)박종문 삼성증권 사장과 아폴로 존지토(John Zito) 공동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증권

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아폴로의 독보적인 글로벌 크레딧 및 사모주식 투자 역량을 바탕으

로, 삼성증권 고객 대상 상품 라인업 확대 등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증권은 아폴로의 글로벌 운용 역량과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체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리테일 및 기관 고객 모두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폴로는 투자등급부터 하이일드에 이르는 프라이빗 크레딧, 사모주식, 실물자산 등 대체투자 전 영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운용사다. 전 세계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정교한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제공하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박종문 삼성증권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역량을 갖춘 아폴로와의 협약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수준 높은 대체투자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우량 운용사들과의 전략적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체투자 상품 공급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존 지토(John Zito) 아폴로 공동대표는 “한국 시장에서 탄탄한 고객 기반을 보유한 삼성증권과의 파트너십은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아폴로의 원칙 중심 투자 철학과 삼성증권의 전문성이 결합해 한국 투자자들에게 프라이빗 마켓의 새로운 투자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상장협, ‘상법개정안 찬성 의견서’ 국회 제출

“경제유물 개선할 필요 있어”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한다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정부가 작년 말 입법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기준금리와 시장이율, 물가 상승률, 그밖의 경제 사정 변동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협은 “시장금리 변동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제유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대의 경제 상황을 무시한 채 60년이 넘은 경제유물을 방치하면서 2020년 이후 시장금리에 비해 상사 이율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이율과 시장금리 간 고리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이익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다면 채

권자 입장에선 채무이행보다 지연손해금 발생을 선호하게 되고, 반대로 법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낮다면 채무자는 채무이행을 지체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상장협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제도 악용 소지가 줄면서 기업 재편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미 주요국은 변동이율제를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신한투자증권
IRP 원리금비보장형
3년·5년 수익률 1위

신한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원리금비보장형 3년, 5년 수익률 증권업계 1위를 차지했다.

3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현황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2025년 4분기말 기준 퇴직연금 증권업 사업자 중 개인형퇴직연금(IRP) 3년 수익률 16.73% 및 5년 수익률 7.19%로 각각 증권업계 최상위권에 올랐다.

IRP 1년 수익률을 살펴보면 2025년 3분기말 기준 18.59%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 4분기말에는 20.98%로 2위를 기록하는 등 2개분기 연속 증권업계 상위권을 기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연금자산 수익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성과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를 통해 고객의 생애주기와 투자 성향을 종합 분석한 맞춤형 일대일 대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간 MP(모델포트폴리오)’, ‘투자전략 카드뉴스’, ‘AI기반 맞춤형 상품 추천’ 등 가입자가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투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해 가고 있다.

정용숙 신한Premier총괄 사장은 “단순히 상품을 제안에 그치지 않고, 노후 자산을 함께 키워 나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